

가업과 천직

나 운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공통된 병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 .

두말 할 것 없이 대통령병일 것이다. 즉 아들만 나면 누구든지 대통령시킬 꿈을 꾸고 있으니 말이다.

언젠가 TV를 보니 평생 구두닦이로 자수성가한 분의 인터뷰 장면이 방영되었는데 사회자가 묻기를 「하필이면 왜 그런 직업을 택하셨습니까?」 하는 것이었다. 구두닦이를 천직(天職)으로 알고 그것으로 대성(?)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실례되는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 더욱이 자기 직업을 천시(賤視)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직업을 바꿔보려는 욕망에 가득차 있다.

외국사람들에게는 소위 가업이란 것이 존중되고 있어 조상때부터 대대로 어떤 직업을 계승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기 때문이다.

일례를 들면 일본에 유명한 국수집이 있는데 건물은 낡고 초라하지만 점심때에는 초만원이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하는데 점잖은 신사가 점심때마다 나타나서 소위 <도어보이> 노릇을 한다. 바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다. 즉 이 사람은 자기의 가업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으로 알고 - 현직 국회의원이지만 매일 한두 시간씩 자진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이다.

무릇 자기 직업을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편 전업(轉業)이란 말이 있다. 자기가 해 오던 직업을 바꿔서 다른 방면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즉 자기의 전공을 바꾼다는 것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요, 다시 태어나는 셈이 되는데 이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애를 걸고 초지일관 - 한번 택했던 그 분야, 그 직업을 죽는 날까지 열심히 계속하면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왜 모른단 말인가………… .

만약 전업을 꼭 해야겠다면 신중을 기하되 일찌감치 해야 하며 두번 다시 전업할 생각이란 아예 말아야 한다. 결코 길지 않은 자기 생애를 두 번씩이나 포기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기술이고, 학문이고, 예술이고, 좀 우직하고 꾸준한 사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예가 많은데 이것은 자기의 전 생애를 걸고 - 자기의 전공·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죽는 날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에 몰두한 결과일 것이다.

자기의 전공과 전혀 관계없이 모두 대통령 될 꿈만 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

가업을 존중하는 나라,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맡은 분야에서 뚝뚝이, 자부심과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될려면 먼저 우리의 그릇된 의식구조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월간 에세이 '91. 8.>